

중국, 시안 이어 안양도 봉쇄

올림픽 앞두고 오미크론 비상 3개 도시 총 2천만명 출입통제 춘제 이동 제한 보조금 약속도

내달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베이징의 관문인 텐진에서 중부 허난성으로 확산하면서 중국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허난성의 인구 550만 도시 안양시는 산시성 시안(인구 약 1,300만), 허난성 위저우(인구 약 110만)에 이어 작년 말 이후 중국에서 봉쇄 조치가 내려진 3번째 도시가 됐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을 비롯한 몇몇 지역이 춘제(중국의 설) 기간 외부 지역으로 이동 자제를 주민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지역은 춘제 때 고향을 가지 않는 외지 출신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기로 했다.

1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안양시에서 9~10일 26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 이 중 2건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명 중 한 명은 중국 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텐진에서 지난달 28일 안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안양시 방역 당국은 10일 각 회

사, 마을별로 전원 핵산(PCR) 검사를 하고, 방역 업무 등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민 이출을 금지토록 했다.

안양시 코로나19 예방통제지휘부는 10일 발표한 대시민 통고문에서 "각 구내 모든 주민은 핵산 검사 등 방역 작업에 협조할 때를 제외하고는 외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작년 말 이후 도시 전체에 주민 이출 금지령이 내려진 시안, 위저우, 안양 등 3개 도시에 걸쳐 현재 이출이 금지된 주민 수는 모두 2,000만 명에 육박한다.

당분간 철도, 버스, 택시 등도 이들 도시 밖으로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허난성의 경우 안양 외에도 10일 쉬창시에서 74건, 정저우시에서 11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각각 보고됐다. 정저우시는 진수이구 등 9개 구에서 주민 전원에게 핵산 검사를 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비상"이 걸리면서 1,500만 주민 전원에게 핵산 검사에 들어간 텐진 상황도 여전히 심각치 않다.

텐진 방역 당국은 10일 오후 6시 기준 31건의 신규 확진 사례와 10건의 무증상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텐진발 감염이 백수십 km 떨어진 베이징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베이징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9

일 이후 텐진을 여행한 주민은 자진 신고하라고 공지했다.

또 베이징 주민은 텐진으로 가지 말고, 텐진 주민은 베이징으로 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철도 당국은 텐진발 베이징행 열차 티켓 판매를 대부분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10일까지 베이징, 상하이, 텐진, 허난성, 저장성, 광시좡족자치구, 내이명구자치구 등 최소 7개 성 또는 성급 자치구 및 직할시가 춘제 기간 외부로 나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일부 도시는 '당근'까지 내 걸었다.

안후이성 허페이시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시내에 체류하는 외지 출신 합법 체류 근로자 중 건설, 공업, 서비스 영역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1,000 위안(약 19만 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발표했다.

또 저장성 닝보시의 기업들은 춘제 기간 외지 출신 근로자들이 도시에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식사 환경 개선, 숙박 보장 등 유인책을 제시하라는 당국의 권고를 받았다.

한편 빠른 감염 증가세 속에 지난달 22일부터 고강도 봉쇄령이 내려진 시안은 감염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고 판단, 봉쇄 해제와 관련한 기준 등을 10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폭염에 북적이는 해변

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의 한 해변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며칠째 최고기온 40°C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국인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미국”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국·일본 가장 불신

한국인들은 가장 신뢰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큰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가장 불신하는 국가로 꼽혔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12일 '아시아 브리프'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게재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태국, 베트남 등 주요국 20개국에 대한 호감도 등을 묻는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1.6%(복수 응답)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미국을 꼽아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3%, 6.8%로 조사 대상 20개국 가운데 19위, 20위를 기록해 한국인들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로 꼽혔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

치에 대응한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것 등이 반감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를 묻는 말에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미국을 뽑아 69.2%에 달했다.

중국은 6.9%, 북한은 6.5%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본은 1.1%에 그쳐 북한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국가'에서도 미국은 68.2%로 최상위를 차지했지만, 중국(9.6%)과 일본(3.1%)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연구소는 20개 주요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여주는 '감정 온도'를 0~100도 사이에서 고르도록 했는데, 미국이 65.9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일본 “3차 접종 가속도”...물량 확보 관전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던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차 접종에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현지 언론은 진단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응해 3차 접종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가동했던 대규모 접종센터를 재설치하고, 모더나 백신 1,800만 회분과 전국의 백신 재고 등을 활용해 고령자와 일반인에 대한 3차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

접종률 0.7%...한국은 41.8% 했다.

일본의 백신 3차 접종은 지난달 1일 시작됐는데 주요국과 비교하면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총리관저 홈페이지를 보면 전날 기준 일본의 3차 접종률은 0.7%에 불과하다. 같은 날 기준 한국의 3차 접종률은 41.8%다.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내각 시절 일본 정부는 하루 접종자 14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낸 적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3차 백신 접종은 서두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차 접종을 끝내고 원칙

적으로 8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작년 11월 말부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의료종사자는 6개월, 고령자는 7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시작된 의료종사자(약 200만명) 대상 3차 접종도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지역에 보급된 백신 재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차 백신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3만7,732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극우 인사 장례식서 ‘나치깃발’

유대인 사회·정치권 비판 쇄도

이탈리아 극우 인사의 장례식에 나치깃발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NSA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사회에 충격을 안긴 이 일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로마 외곽의 한 성당에서 벌어졌다.

나치기로 덮인 망자의 관이 성당 안뜰에 놓였고 관을 둘러싼 추모객들은 일제히 오른손을 들어 파시스트식 경례를 했다.

망인은 '네오파시즘'을 추종하는 이탈리아 극우 정치단체 '포르차 누오바'(FN·새로운 전진) 회원으로 지병 수술 후 합병증으로 지난 7일 44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창립된 FN은 이민·난민 유입 원천 차단 등 극우주의적 정책을 내세워 정치 세력화했다.

이번 일에 대해 현지 유대인 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단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을 토대로 장례식 참석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통치 아래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한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로마 인근 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촬영된 나치기로 덮인 관.

/AP=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전남매일

직장인 “흡술이 좋아요”...외식업계 올라
"민생경제 회복 제정당 최대"
전남농협 협소세 추진운동 발원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